

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, 지역 복지시설 기부

조진용 기자

2026년 02월 12일(목) 11:26



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(단장 박형수)은 최근 목포, 무안, 신안 일원의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기부하며 사회적 경영을 실천했다고 12일 밝혔다.

사업단은 지난 10~11일 목포, 무안, 신안 일원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금을 기부했다.

목포시 죽교동에 소재한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원요준 원장은 "최근 경기부진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해 기부가 많이 줄고 운영비용도 증가해 시설 운영의 애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,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"고 전했다.

박형수 단장은 "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"며 "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"고 말했다.

조진용 기자

이 기사는 전남매일 홈페이지(www.jndn.com)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.

URL : <http://www.jndn.com/article.php?aid=1770863181427220004>

프린트 시간 : 2026년 03월 06일 08:17:27